



◇허길량 씨는 관세음보살의 화신 33성상을 높이 120~180cm에 이르는 입상과 좌상, 반가상과 유희상 등 다양한 형태의 조각으로 빚어냈다.

현세에 나투신 '33관음성상'

허길량 씨, 20~27일 공평아트센터서 조각전

신라·고려·조선佛像 재구성

불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불보살 가운데 한분인 관세음보살의 화신 33성상을 조각으로 빚어낸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허길량씨의 '33관음속으로' 조각전이 20일~27일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허씨는 당·송 이래로 전래되는 33관음보살을 <법화경 권7> 관세음보살보문품과 <관세음보살보문시현도>의 전래 도상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독특한 관세음보살상 33점을 선보인다.

허씨는 이들 33관음성상 외에 조선시대 양식 그대로 재색한 16나한상과 신라시대의 석가모니불, 고려시대의 수월관음상, 조선시대의 석가모니불, 현수관을 절감 등 총 60여점의 조각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흥식 동국대 박물관장은 "33관세음보살 화신 성상이 조각으로 제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33관음의 성호에 따르는 도상적 특징이 잘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한 조형미는 근래 보기 드문 수작이다"라고 허씨의 작품을 평했다.



◇한국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전북 순창의 강천사계곡.

'봄의 소리' 찾아 함께 떠나요

강천사 계곡 등 '물소리 좋은 4곳'

한국관광공사와 봄나들이 코스로 봄이 오는 계곡 물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지 4곳을 선정했다.

■순남 향양의 직천 계곡: 호서지역의 명산 칠갑산 남단을 휘감아도는 계곡이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천변을 따라 여유로운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으며 정수거리를 지나 천년 고찰 장곡사까지의 여정도 배를 수 없다.

내용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좋다.

■경남 의령의 칠비계곡: 의령 칠비계곡은 벽계리 협곡의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며 산보하는 맛이 그만. 맞닿아진 바위 병풍이 인상적인 봉황대와 봉황대 큰바위 언저리에 위치한 일봉사의 독특한 가람 배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보성 삼천포의 보성다원: 삼천포로 흘러드는 남도의 젓줄 보성강의 시원이 되는 계곡이다. 울추폭포의 시원한 계류도 구경해 보고 또 인근 보성다원 녹차밭도 거닐면서 봄기운 무르익는 남도의 봄나들이 코스로 그만이다. www.visitkorea.or.kr

■전북 순창의 강천사 계곡: 산자수명한 산세와 신라 도선스님이 세웠다는 유서깊은 강천사가 자리잡은 곳이다. 한국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고찰 강천사 숲길과 계곡 오솔길을 산보하며 봄

수많은 불교 잡지가 강간되고 폐간되는 가운데 단 한번의 멈춤도 없이 20년을 이어온 월간 <해인>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전자합본호 제작에 들어갔다.

해인지 편집장 원철스님은 20주년 기념호인 3월호를 241호에서 앞으로 3~4개월내에 <해인>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20년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서 <해인>을 인터넷 웹진상태로 복간해 내 누구든지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해인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된다(www.haein.org)고 밝혔다.

해인誌 발행 20돌 전자합본호 제작

4개월내 홈페이지 공개

<해인>은 1982년 3월 불교학술회의 회지(4면)로 출발해, 2호부터 불교학술회 회보인 동시에 관공력들에게 해인사를 소개하는 8면 분량의 문서포교지로서의 역할까지 해냈다. 이후 85년 문공부에 정식 등록하면서 현재의 32면 체

제로 모양새를 갖추었다. 성철스님의 법문인 <해인> 2호에 처음 공개된 것을 비롯해, 일타스님, 해암스님 등 열반하신 큰스님의 법문과 여연스님, 원진스님 등 현재 불교계의 주요 필자가 된 스님들의 초기 글들이 <해인>에 실렸다.

전자합본호 제작을 통해 <해인>은 문서포교의 역할에 인터넷포교의 역할까지 더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해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맞는 <해인>의 미래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과 무형문화재연구소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자 교수 언뜻 주체 작품전



경기대 디자인공예학부 이인자(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교수는 2002 대한민국 미술대전 에 연꽃을 소재로 한 '연(蓮) - 연꽃이 피어 향이 가득하니' (사건) 등 16점의 유화 디자인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미술대전은 전국의 역량 있는 작가 212명을 초대해 각각의 부스에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 교수의 작품은 예술의 전당 미술관 A-3 부스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2580-1641

'사람·동물·자연...' 전시회

박항복, 사석원, 이석주 씨 등 개성 강한 구성 작업을 하온 작가 3인의 그림전 '사람, 동물, 자연' 그림이 아기가 16일까지 서울 사간동 갤러리 조에서 열린다. ☎2738-1025

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

전국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이 2월 24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과 관음사 주지 우학스님, 심사위원장인 만화가 이현세 씨와 수상자를 비롯한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영남대학교 관음사에서 진행됐다.



◇2월 24일 제1회 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이 대구 관음사에서 열렸다.

문화소식

문예 대구 영남대학교 관음사에서 진행됐다.

'진흙 속에서 피는 희망'으로 대상을 받은 박보영(20, 대구정보대 1년) 양은 "불교사상을 담은 완성도 높은 불교만화를 그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인천 무형문화재총련 창립

인천시 무형문화재 10호 범패와 작법무 기능보유자인 능화구양사 주지 스님이 주축이 된 '인천시무형문화재총련'이 창립됐다. 4일 인천예총문화회관에서 발족한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는 초대 회장으로 능화 스님을 선출했으며, 앞으로



김홍규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신수와 혜능의 계승

동안기가 끝나고 만행의 계절이 왔다. 스님들은 저저거리로 돌아오지만, 속세에서는 인적이 닿지 않는 오지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인락함을 주지만, 그만큼 자연과 멀어지게 만든다. 정신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정신세계에도 오지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은 신수와 혜능의 계승을 처음 보았을 때이다. 도도히 흐르는 황하도 히말라야 설산의 눈 녹은 물에서 시작되듯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정신을 살피우는 선불교의 큰 흐름도 육조 혜능대사가 주석하던 조계에서 흘러나온 한 방울의 물(曹溪一滴)에서 비롯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서 그 재조지풍은 생략하고, 오조 홍인대사가 후계자를 뽑기 위해 깨달은 바를 시로 지어 보라고 한 그 계승을 살펴보고자 하자. 우선 이미 명망 높은 스님이었던 신수가 지은 계승은 이렇다.

몸은 지혜의 나무요(身是智樹) 마음은 깨닫는 거울(心如明鏡臺)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時時勤拂拭) 티끌이 끼지

"때때로 털고 닦아서 티끌 끼지 않도록 하자"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랴"

않도록 하자(莫遣有塵埃)

이 시를 처음 보았을 때 '도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후인들이 이 계승을 근거로 '신수는 구도의 단계에 있었고, 점수(漸修를 주장하였다'고 한 것도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일자 무식인이면 혜능이 이 계승에 만족하지 못하고, 차원이 더 높은 '오도(悟道)의 경지'를 겨냥해서 지었다는 아래의 시는 나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지혜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菩提本無樹) 마음 또한 거울이 아니다(明鏡亦非臺) 본래 아무 것도 없는데(本來無一物) 어디에 먼지가 끼랴(何處惹塵埃)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일단 '없다' 하면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기껏 '몸은 지혜의 나무 같고 마음은 깨닫는 거울 같다' 해서 필(Feel)이 왔는데, 그 느낌을 딱 지워버리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눈 덮인 머리를 감추고 허리에 구름만 잔뜩 휘두른 채 딱 버리고 선 거대한 바위산이 마주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왔다. 올라갈 길은 보이지 않지만(本無一物, 心行處滅), 꼭대기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眞空妙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대의 석학 신수와 무식한 나무꾼 혜능 중에서 오히려 후자가 아득한 산꼭대기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일깨워준다. ■문학평론가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이미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전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과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교상미국의 우전왕(優填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 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 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축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 농업은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동
- ◇기차 : 김천-상주 *택시이동
- ◇지가동 : 경북고속도로 중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